

'로타리 회원증강! 하늘을 날아보자'

글. 한양로타리클럽 회장 최경순

지난 2월 8일 우리나라 동남단에 위치한 창원에서 개최된 2017-18년도 한국로타리 제2차 회원증강 연수회에 한양-연세 위성클럽 창립의 성공사례를 발표하기 위해, 장세호 차기총재, 박수부 차차기총재, 변기태 차기 사무총장, 한태숙 서울RC 회장 등과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이른 아침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창원에 내려서 가는 길에 경남 중부지역의 산업경제의 중추역할을 하는 도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19개 지구가 함께 하는 회원증강 세미나만큼 훌륭한 분들이 참석을 하였고, 회원증강을 위한 격려사와 회원의 향후대책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사례발표 등이 있었습니

다. 저는 사례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제가 한양로타리클럽 제62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클럽을 잘 유지해야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클럽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타리의 심장이 되는 회원유지와 회원증강을 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회원영입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650지구 이순동 총재님은 취임사를 통해 '뉴로타리' 모델을 선보이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회원구성의 혁신이 되는 기본전략으로 가족과 함께(family together)를 추진 할 계획을 말씀하였고, 여기에 영감을 얻어 한양로타리에서 지원하는 로타렉트를 떠 올렸습니다. 로타렉트활동을 통해 봉사경험이 있고 로타리정신을 이해하고 있



는 로타랙트 출신이야말로 최적의 영입대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로타랙트졸업생들을 회원으로 영입하고자 수백명의 연세로타랙트 졸업생들의 연락처를 수집 확보하여 SNS와 메일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영입하고자 하였으나, 이들은 한창 사회에서 많은 일을 배우고 있으며 바쁘다는 이유로 로타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움을 표시하며 단톡방에서 한명씩 한명씩 나가기 시작하였고 제 마음은 조마조마하였습니다.

그동안 한양로타리에서 매년 많은 지원을 하였으나 로타랙트를 떠난 후 이들을 로타리로 오게 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는 중 문득 재학 중인 현재 로타랙트 학생들을 떠나기 전 로타리로 영입을 해야겠다는 계획으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 후 연세대학교를 방문하여 로타리 활동에 대한 경험담을 들려주고 한양로타리 클럽의 문화와 분위기를 들려주며 로타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하였습니다. 연고전과 MT에도 지원하고 한양로타리 창립 62주년에도 학생들을 초대하였고, 로타리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알렸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과 활동을 바탕으로 한양 연세로타리 위성클럽이 2017년 11월 12일, 31명의 한양 연세로타리 위성클럽의 창립회원을 탄생하였습니다.

본 위성클럽의 탄생은 'Family Together' 지구 운영방침에 부응하여 차세대 청년들에게 로타리 참여기회를 넓힘과 동시에 회원증강과 클럽활성화를 도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양 연세로타리 위성클럽은 차세대 로타리를 이끌 20대 젊은이들로 로타리 활동에 참여하여 성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타 로타랙트 및 OB회원에게 좋은 전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3650지구뿐만 아니라 한국로타리 역사상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속적인 교류와 친교활동, 봉사활동의 공동수행을 통해 한양연세 위성클럽회원들에게 로타리안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2월 5일 3명의 신입회원이 입회 원서를 보내와 이제 한양연세로타리 클럽은 34명의 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제2차 회원증강 연수회 발표를 통하여 '로타리 회원증강! 하늘을 날아보자' 로 마무리 인사를 하였습니다.

(좌) 제2차 한국로타리 회원증강 세미나에 참석한 한태숙 서울RC 회장과 최경순 한양RC 회장
(우) E/MGA 3772지구 윤영호 전총재와 함께 최경순 한양RC 회장



12월 월례회의에서 한양 연세 위성클럽 창립을 소개하는 최경순 한양RC 회장